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Exploration of Change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방은영(EunYoung B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s of teacher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From November 4 through December 16, 2020, five beginning teachers who had volunteered to serve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located in a district of the city of Seoul were respectively interviewed in depth twice, 40 minutes each, via Zoom that is a video communications app, and they received teacher education six times, one and a half hours each. The teacher education revolved around "Christian world view," "spiritual training for teachers,"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I,II)" and "teacher-child-parent relationship building and communications." The data that were gathered by the in-depth interviews and reflective journaling were analyzed in a qualitative manner to explore what changes the beginning nursery teachers underwent. As a result, their chang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reflective thinking on nursery teacher qualifications,"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for the first time and feeling wonder," "becoming a teacher as a specialist, not just as a volunteer or dedicator," "being in need of practical cooperation and help from experts," and "resolving to become a teacher trying to learn all the time and serve gladly."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cooperation from experts and sustained and systemized teacher education are both necessary to select and nurture church school teachers and to help them to develop their professionalism.

Key words : Church school, Nursery department, Beginning teacher, The process of teacher education.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3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충신대학교 종합관 6층,
lovelybey@hanmail.net

영아부는 ‘교회학교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정대현, 곽연미, 2014) 영아 또한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므로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정희영, 2004).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훈련을 통해 영아는 구원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아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탁아기능이나 양육자와 동일 공간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자칫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는 예배환경(정해숙, 2007)을 극복하고 영아의 신앙발달에 최적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박혜영, 2003).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과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장화선, 2020) 영아부 운영 또한 교사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박미화, 하연희, 권미량, 2019). 여기에 더해 2019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은 한국 교회학교 교육의 퇴보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학교가 직면한 어려움들은 교육분야에서의 탈학교화라는 개념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물리적 공간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유재덕, 2020)와 맞물려 교회학교의 존재의 이유와 본질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으로서 영성과 섬김의 정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에 더해 박미라(2006)가 제시한 바처럼 깊이 있는 지식, 아동의 성장방식 이해, 교수-학습 과정 이해, 교수법 사용 등의 훈련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요구된다. 교회학교 교사들 중 처음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사들의 경우, 교사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교사직을 수행할 경우, 교회학교 현장에서의 적응뿐 아니라 실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로 자원하는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교사직을 권유받는 상황(박은혜, 2013)에서 사전교육 없이 교사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박범철, 2008; 박상진, 2007; 박행님, 2014). 이는 적지 않은 교회가 교사부족을 이유로 헌신적인 봉사의 자세와 신앙적 열정만을 교사자격의 충분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교사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도 않은 교사를 선발(정영선, 2008)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교사는 자칫 자원봉사자인 ‘비전문가’로 인식되기도 하고(이영은, 2002; 임용수, 2001) 결국은 이러한 교사요인이 교회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회학교의 학생 수 감소와 위기 초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강용원, 이현철, 2010; 박행님, 2014; 박현웅, 2005).

이와 관련해 조철현(2017)은 교회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전문성, 영성,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였고 이요섭(2002)은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교사선발, 사전교육, 지속교육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제

대로 된 교사교육의 부재는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양성과 관리에 있어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한미라, 2008). 이런 의미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큰 틀에서 예비교사교육과 현직교사교육의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초임교사들(Kathleen, 2008) 중에서도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김옥주, 2013). 더 나아가 영아부서 운영 및 영아와 부모 모두를 아우르는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 연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입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로서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교육관이나 태도, 그리고 전문적 지식이야말로 교사로서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김민정, 2017).

박미화, 하현희, 권미량(2019)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영아부 교사 대상 교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예비 전 모임 수준(61.9%)의 교사관리가 대부분이고 교사교육 빈도는 일년에 한 두차례(52.4%), 그리고 교사교육의 주제는 교사의 영성(3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여전히 내용과 방법 면에서 부실하고 교사의 영성훈련에 치우친 사례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교회학교 교사직의 수행과 관련한 어려움과 관련해 ‘교사로서의 교수법, 발달 이해 등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임을 밝힌 함영주 외(2015)의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반드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영성 측면뿐 아니라 가르치는 연령에 대한 지식과 실재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현조, 배지희(2018)의 경우, 실제 영아를 지도해 본 경험이 없는 초임교사의 경우, 영아들이 귀엽기는 하지만 다루기 힘든 존재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의 경우, 다양한 발달특성과 욕구를 지닌 영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면 영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김지현, 양옥승, 2009)에 미숙함을 나타내 보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교회학교의 본질인 신앙교육의 중심을 잃은 채 우유나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돕는 보살핌 위주의 직무수행(김옥주, 2013; 양옥승, 2004)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쉬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경력이 많은 동료 교사나 전임교역자 등으로부터 받는 친절함의 손길이나 충고는 초임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영아부 예배가 영아와 부모와의 동시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 교육 못지않게 부모와의 소통과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Schmidt & Knowles, 1995).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국 초임 영아부 교사가 영아를 지도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초임교사를 서툰 존재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임교사는 좋은 교사되기의 가능성과 소망을 접어둔 채 오히려 기존의 관습이나 경력자 교사들의 교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현조, 전홍주, 2020).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교사

로서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충만한 시기(Halford, 1998; Kathleen, 2008)인 교사 지원 초기, 그리고 영아부를 처음 맡게 되는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은 더욱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는 더욱더 교사자격의 기초로서 철저한 영성훈련과 영아관련 지식 및 실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준비와 적응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신감과 기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영아를 지도하는 초임교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성은영, 최승연, 2015; 이완희, 박찬옥, 2005; 최지현, 권경숙, 2012)은 주로 영아교사로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적응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지원방안(강은영, 김진옥, 2020; 김옥주, 2013; 문은영, 신혜원, 2012)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교사교육의 현황(김선미, 2010; 노옥경, 2017), 개선방안(박은혜, 2020; 박행님, 2014; 이기룡, 2014),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은혜, 2008; 신언혁, 2004; 이수인, 2014; 임용수, 2001) 등이 있어 왔다. 하지만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교육 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김국환, 1990; 송문규, 2013; 정희영, 2011; 조기숙, 2020)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 평가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 성경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부모교육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초임 영아부 교사교육에 적용하여 적극 실천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처음 지원하여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희망하고 이에 동의하는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Covid-19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오영범, 이창두, 2012)을 활용한 교사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총 22명의 교사 중 5

명의 초임교사들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동의한 교사들이다. 본 연구대상 교사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participants

	Age	Faith history	Marital status	Reason for applying	Highest level of education	Job
A	34	A cradle Christian	Single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Freelancercartoonist
B	37	12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Employee
C	38	5 years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Master's degree	Cafe owner
D	42	23 years	Married (1 Child)	Religious worker's suggestion	Associate degree	Housewife
E	29	A cradle Christian	Single	Fellow teacher's suggestion	Bachelor's degree	Missionary group executive

2.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심층면담과 교사교육

1). 영아부 초임교사교육의 출발점

본 연구의 출발점은 2020년 10월 초, 영아부 전담교역자 및 영아부 동료 교사들로부터 권유를 받아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초임교사 두 명과 연구자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도대체 영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교육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실재를 배울 수 있나요?”, “그냥 교사로 지원해서 섬기다 보면 잘할 수 있을거야~라는 말들만 믿고 지원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사해도 되는 건지 정말 죄송하고 혼란스러워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초임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일정부분 자발적이지 않음과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부담감으로부터의 걱정의 말들은 유아교육전문가로서 교회학교 영유아부 전담교역자 2인과 함께 2021년도 교사교육을 논의 중이던 연구자로 하여금, 관습처럼 반복되어오던 일회성 2시간 정도의 집합교육에 의한 교사교육 계획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 영성훈련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담당 영아 연령이나 교사경력 유무를 고려한 소규모의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필요를 느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였다.

2). 연구자 배경

본 연구자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 3년, 초등부 교사 6년, 청소년부 교사 2년 경력을 지녔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여러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특히 영유아부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유아 발달, 교사-영유아 상호작용법, 부모교육,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 관련 강의들을 주로 해왔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지난 3년간 교회학교 교사교육 관련한 자문과 교회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기독교 교사론과 부모교육을 주제로 강의에 참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자격 강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가 지닌 다양한 연령의 교사경험은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해당연령 영유아나 아동, 청소년의 발달특성 이해와 관련한 지식의 습득,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전담교역자와 공유하면서 2021년 영아부 교사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사선발 시기를 앞당기고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라도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3). 영아부 초임교사 심층 면담의 내용과 방법

영아부 초임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위한 내용은 선행연구들(김향자, 김혜선, 양미현, 2007; 이완희, 박찬옥, 2005; 조혜진, 2007)에서 제시한 영아반, 초임교사, 입문교육, 교직적응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은 본격적인 교사교육이 실시되기 직전과 6회차의 교사교육이 모두 끝난 후에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개인별로 각 40분씩 총 2회 이루어졌다.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영아부 교사 지원 동기’, ‘교회학교 교사 경험 및 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영아발달 관련 사전지식 및 경험 유무’, ‘교사교육에 기대하는 점’ 등이었다. 교사교육 직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은 ‘교사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교사교육 전후의 가장 큰 변화’, ‘교사교육의 개선점’,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기대’ 등이다. 각 교사별 심층면담에서의 주요 내용과 개인별 특이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교회학교 교사경험이 없고 영아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예배참석은 필수이며 분반모임을 진행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교사교육에서는 영아와 부모관리 및 분반모임 운영방안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이 가장 유익하였고 마지못해 하는 교사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직교사교육과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의 필요, 그리고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 영아부 경력교사들과의 실제적 조언 나눔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에 대한 아

쉬움을 말하였다.

B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초등부 교사 2년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 역할은 예비 참석은 필수이고 분반 모임 진행과 학부모 관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 거는 기대로 영아 발달 이해와 부모 관리방안을 말하였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느낀 점은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관리와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분반 모임 자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받기를 희망하였으며 이후의 현직교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C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중등부 교사경력 1년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역할로 분반 모임 진행을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분반 모임 운영 방법 및 학부모 관리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다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로서 본을 보여야 함과 전문성을 지닌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또한 억지로 하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교사교육에서 교사의 영성관리 측면을 더욱 보강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었다. 이후의 지속적인 현직교사교육 참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전문가 협업 교육이 필요함도 말해주었다.

D교사는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자녀양육 경험이 있고 초등부 교사 8년의 경력을 지녔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교사역할에 대해서는 예비참석과 영아-부모 신앙훈련 및 학부모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교육에서는 교사자질 향상과 부모관리 방안을 좀 더 심도깊게 다뤄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교사로서의 지속적 배움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영아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영아와의 소통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후의 현직교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E교사는 교사교육 직전의 심층면담에서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 경력이 있으며 영아부 교사의 역할은 영아와 부모의 신앙 인도 및 분반모임 진행이라고 말해주었다. 영아발달과 관련한 교육 경험은 없으며 교사교육을 통해 영아 연령별 발달 이해와 소통법 알기를 희망하였다. 교사교육 직후의 심층면담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커졌음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새롭게 알게된 점이 많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내 보였다. 교사교육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 강의형식보다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희망하였으며 현직교사교육이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교사역량 계발을 위한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요구하였다.

4).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 및 구성 과정과 실행

영아부 초임교사를 위한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교회학교 교사교육 프로그램 관련 선행연구들(박은화, 2009; 은준관, 2007; 조한나, 2019; 최성진, 2018; 홍정근, 2002)에서 제시한 내용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교사교육의 주제들인 ‘기독교 세계관’ 과 ‘교사의 영성’,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론’을 근거로 본 연구대상이 영아부 초임교사들임을 고려해 교육대상으로서의 ‘영아발달의 이해(I, II)’, ‘교사-영아-학부모 관계와 소통법’ 등 총 6회차의 교육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아부 전담교역자 1인, 영아부 교사경력 10년 이상의 영아부 부장집사 1인, 영아부 5년 이상의 경력교사 2인, 영유아부 교회학교 12년 교사경력이 있는 유아교육과 교수 1인의 내용 검토를 받았다. 각 교육주제에 따른 세부내용은 단순한 이론의 전달 차원이 아니라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예배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교사교육의 주제와 세부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jects and main contents of teacher education

Weeks	Subjects of teacher education	Details
Week 1	Christian worldview	Confession of faith in Christian salvation thought, Christian identity, creation of God and corruption, salvation, problems of God's authority and sovereignty.
Week 2	Teachers' spiritual training	Resolve to become a Holy Spirit-filled teacher in everyday life and to change and mature
Week 3	Christian teacher theory	The life of Jesus as an example as a teacher. Teacher self-esteem.
Week 4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I)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theological aspect (Infant created in the image of God/Infant in sin/Infant under the covenant of grace/Infant as a spiritual being)
Week 5	Understanding of Infant Development II)	Infant understanding from the developmental psychological aspect (physical/social-emotional/cognitive/linguistic/spiritual developmental)
Week 6	Teacher-infant-parent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method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fants and parents as a relationship of worshiping and communicating together, and effective communication methods and practices of parent education.

앞의 Table 2에서 제시한 바처럼 교사교육의 내용은 교사로서의 영성관리와 담당하게 될 영아발달

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이를 토대로 영아부 분반 모임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비록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의 상황에서도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들이 부실하게 전달되거나 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실습을 반복하였으며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교사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전 스케줄 공지 및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전송을 매 주차 마다 진행하였다, 그리고 총 6회의 교사교육 중 도입부의 1-2회차 강의를 맡은 전임사역자와 함께 초임 영아부 교사들의 수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PPT 작성 및 참고 영상과 음원을 활용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최종 구성된 교사교육 내용은 유아교육 교수 1인과 영아부 전임교역자 경력을 지닌 유아교육과정 박사과정 재학 중인 1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은 후 교사교육에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교사교육은 온라인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총 6회 각 1시간 30분씩 진행되었으며 전임사역자(2회)와 유아교육 전문가(4회)가 주 강의를 맡아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차시별 수업은 도입(10분: 원격화상회의시스템 메인 룸 입장 및 인사 나누기-시작 기도), 전개(50분 주제별 교육), 마무리(30분: 질문, 강의 소감과 피드백, 마무리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전화안내와 이메일을 통해 연구대상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일반적 배경을 묻는 설문지와 연구참여를 위한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매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는 교사개개인이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심층면담과 매회 차 교사교육 직후에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제출한 교사교육 내용에 대한 소감과 반성적 저널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수집·활용되었고 모두 A4 용지 69장 분량이였다.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하여 읽거나 보면서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단 및 문장분석(김현주, 조형숙, 2006)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총 46개의 의미단위와 1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최종 5개의 범주로 공통된 주제들을 묶는 범주화(coding category) 과정을 거쳐 주제영역을 나누고 분류하였다. 이후 각 주제마다 적합한 사례들을 요약하고 추출한 후 여러번 반복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 교사들에게 연구결과 평가작업(Mmember checking)의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확인 검증의 절차를 거쳐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조정과정을 거쳐 자료를 재분류,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을 통한 범주화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Categorization process through data analysis

5 final categories	Subcategories (16)	Meaning unit (46)
Reflective thinking about infant teacher qual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ce of teacher qualification • Reflectively thinking beyond regrets and burdens • Acknowledgement of not being qualified as a teacher 	Teacher Qualities, Infant Department, Teacher, Qualification, Mistakes, Education, Recommendation, Burden, Reflection, Reflective Thinking, Regret, Preparation,
The understanding and surprise of infant development that was encountered for the first t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ear of dealing with infants • Preconceived notions about infants as education targets who are never easy to deal with • Infants' amazing abilities 	Infant, Unknown world, Experience, New world, Surprise, Prejudice Education target, Infant's ability
Becoming a teacher as an expert beyond service and ded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mmendation that all you need to do is volunteer • Incompetent teacher disguised as a dedicated one. • Having specialty as an infant teacher 	Service, Dedication, Initiative,, Specialty Responsibility, Incompetence, Competence, Recommendation,
Need for practical help from expert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 for Changes in teacher education conducted only by teachers demand • Need for the education of infant education related experts with spirituality • Teaching teachers through collaboration with church and experts 	Clergy, Expert, Ability, Verification, Help, Collaboration, church, Spirituality, Infant Expert
Commitment to be a teacher who is always willing to learn and 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membering the nature of the teachers who serve the nature of the teacher who serves • Being willing to teach without being forced to • Becoming a teacher who always learns and develops • Being responsive and actively practice 	Joy, Always, Service, Teacher who learns, Good evaluation, Development, Commitment, Practice, Force

III.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 과정에서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등 교사역할에 대한 인식과 점차 교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직전과 직후 총 2회의 심층면담과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리자 교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교사들 중 B D, E교사의 경우에는 2021년 영아부 교사직 시작 전에 일회성 2시간 정도의 교사교육을 기대했었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교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 섞인 말들을 하기도 하였고 교사자격이나 준비와 관련해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거나 E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등 속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다행히 심층면담과정에서 교사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안내받은 후에야 초임교사들은 관심을 보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에 자신이 지녔던 영아부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면서 점차 반성적 사고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솔직히 영아부 교사직에 대해 권유를 받고는 거절이 어려워 등 떠밀리듯 마지못해 교사를 하겠다고 말한 상태라 민폐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눈치껏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았다...중략...오늘 ‘교사와 영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영아부 교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무자격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11월 14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교사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는 워낙 교사지원자가 부족한 상태라 마치 귀한 대접을 받고 교사가 되어주는 것 처럼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 경건의 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읽기 등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게 사는 내 모습이 얼마나 교사로 부족한지를 일깨워 준 오늘의 교육이 새삼 크게 와 닿는 날이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이번에 교사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린 자녀도 키워 보았고 교사 경험도 풍부한 상태에서 대상 연령만 바뀌 교사로 섬기게 될 것이므로 별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함을 되돌아 보게 한 오늘이었다. 교회학교 교사되기는 결코 쉽지 않고 특히 영아부 교사는 절대 준비없이 함부로 맡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2월 16일 D교사 심층면담 내용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교사자격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사고로의 전환은 강의 피드백과 나눔의 시간에 많이 드러났다. 교사들은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교사가 부족하니 ‘정말 사람이 없고 나라도 해야한다면 해볼게’ 라는 식의 교만한 마음까지 가졌었음을 고백하였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아부 교사직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교만한 태도야말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의 모습이 아니며 교사교육을 계기로 지속적인 채움과 성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2.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D교사를 제외하고는 결혼이나 자녀양육 경험이 없는 미혼의 교사들로 D교사를 포함해 모든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의 이해(I, II) 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초임 영아부 교사들은 결코 쉽지 않은 학습대상자로서의 영아 다루기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고유한 인격체로서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영아를 ‘미숙한 존재’, ‘소통하기 힘든 존재’로 인식해왔던 선입견을 점차 바꾸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특히 교사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 강의가 매우 유익하였고 이를 통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예비가 부모도 함께 드리는 예비라서 한편으론 영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보다 부모와 관련한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영아발달 이론을 배우면서 영아가 단순한 ‘어린 아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도가 정말 마음에 쏙쏙 와 닿았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영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 신기하다. (11월 28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가 영아 발달관련 주제였다. 막상 영아부 아이들을 지도하려니 두려웠고 어떻게 영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사교육이 항상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전문가 강의를 통해 영아가 어떤 발달 특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유능한 존재로서 영아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12월 16일, A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영아발달 이론 중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을 다양한 이론과 접목해 배우는 시간이 참 좋았다.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영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실제에서의 적용 방안까지... 중략...

영아의 능력과 관련해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시간이었다. (12월 5일, B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의 총 6가지 주제 중, 영아발달의 이해(I, II)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을 말해주었고 교사교육 과정 내내 궁금한 점들을 메모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초임교사들 중 일부는 영아와의 인격적 소통이나 교육을 통한 변화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대부분 부모와의 소통과 관리에 더 관심이 많았음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었고 영아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교사교육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말해주었다.

3. 봉사과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이나 교사교육 과정의 초반부에서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 대부분 교사직을 ‘봉사’와 ‘헌신’의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교사교육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는 그저 봉사만 하면 된다는 주변의 권유와는 달리 감히 아무나 할 수 없으며 봉사나 헌신의 의미를 넘어 영성과 함께 영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주도적으로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교회학교 교사를 ‘봉사자’, ‘비 전문가’ 라고 여기는 주변의 인식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관습처럼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음도 말해주면서 교사교육이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당위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 영아부 교사들이 교사교육을 통해 헌신을 가장한 무능력한 영아부 교사가 되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교사는 봉사직 아닌가?...중략...목사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잘 할 수 있을거라고 하시구...중략...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영아부 전도사님이 매주 잘 안내만 해주시면 무난히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11월 4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항상 교회학교 교사 수가 부족하고 누구나 봉사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번 영아부 교사 지원은 꽤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교사교육에서 교사론을 배우면서 봉사와 헌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중략...영아부 교사로서 단순히 봉사한다는 마음을 버리고 교사로서 전문가다운 지식과을 겸비하고 준비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11월 21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 지원했다가 4개월 만에 스스로 교사직을 내려놓으며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자리’ 라고 말하고는 급기야 교회까지 떠난 친구가 떠오른다. 교사교육을 받으면서 그저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무지와 교만을 반성하게 되었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2월 12일 A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교사교육을 받고 보니 영아부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영아와 부모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신앙성숙을 도우며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그저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12월 16일 C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4.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임교역자 뿐 아니라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교사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은 비록 2회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임교사들은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전임교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을 벗어나 영성을 갖춘 영아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교육이 초임교사들이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과 특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관련해 전문가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영아발달 특성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중략...영아부 교사는 반드시 영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영아 이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11월 28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내가 자녀양육을 해 보아서 그런지 영아부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영아부 초임교사들 보다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히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이전의 자녀양육 과정에서 반복했던 나의 실수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중략... 전문가 관점에서 정확히 안내해주는 영아발달 특성과 실제 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왔고 교사교육에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12월 16일 D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교사교육에서 영아발달 특성을 쉽고도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는 전문가 수업이 나를 포함해 다른 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중략... 그래서인지 ‘혹시나’ 했던 교사교육이 ‘역시나’ 가 되었다. 영아발달

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교사로서의 중심을 잡아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 (11월 28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처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과 관련해 전문가로 부터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직접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회학교 영아부 교사교육의 내용이 전임교역자 주도의 영성훈련을 넘어 담당하게 될 영아관련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5.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각자의 교사 지원 동기와 과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준비 없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고백하였다. 하지만 교사교육 과정을 통해 ‘억지로 섬기는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이를 활용해 더욱 열심히 섬기는 교사’가 되어야 함의 다짐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영아부 교사로 직무를 수행함에 쉽게 탈진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을 권유하고 추천한 동료교사가 교사교육은 일년에 일회정도 특강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큰 부담갖지 말라고 말해 주었는데... 중략...이번의 영아부 초임교사 대상 교사교육은 내게 교사로서의 자질을 되돌아보고 좀더 준비된 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중략...이번 교사교육을 통해 억지로 등 떠밀려 하는 영아부 교사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왜 되어야 하는지 점검하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4일, B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이전에 유치부 보조교사 6개월의 경험이 생각난다. 그때도 주변 권유로 시작했지만 유아를 대면하고 다루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도망치듯 온갖 핑계를 대고 그만 두었다...중략... 이번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의 교사교육은 나에게 영아부 교사직에 소망을 갖게 하였고 용기를 갖게 해 주었다. 제발 억지로 하는 교사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 (11월 28일 E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영아부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머뭇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그분의 오랜 설득 끝에 교사 되기를 결정하고야 말았다... 중략...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막연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적극적인 태도로 섬기는 영아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12일 D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이번의 교사교육 뿐 아니라 이후의 현직교사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여야 하고 각자 강한 참여 의지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영아부 초임 교사들은 교사교육을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안이한 태도나 게으른 관습 따라하기,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게 하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영아부 예배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2021년도 영아부 초임교사로서 영아들과 부모님을 영 상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거나 매주 전화 심방을 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대면 상황 못지 않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 교사교육에서 갖게 된 반성적 사고와 열정이 쉽게 식

지 않도록 현직교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정말 좋겠어요. 교사교육은 정말 교사 누구나 빠지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12월 16일 E교사의 심층면담 내용 중)

나 자신도 그랬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누구나 시간과 봉사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교사인데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사도 보았던 터라 앞으로는 나쁜 관습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교사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먼저 정신을 가다듬고 혹사라도 그런 교사들이 있는지 주변을 함께 살피고 챙기면서 영아부 예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12월 12일 C교사의 반성적 저널 중)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하고 교사자질의 기초로서 영성과 섬김의 자세에 더해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부모 관계까지도 아우르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의 겸비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교회지도자들과 전담교역자들은 교사들의 필요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이를 특히 초임교사를 위한 교육과 관리에 잘 반영하여 침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학교의 회복과 성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나타내었다. 교사교육 전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은 특별한 자격이나 검증과정이 없어도 영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시간을 들여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자신이 영아부 교사로서 지녀야할 자격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됨이 매우 송구하고, 적잖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도 말해주었다. 하지만 교사교육 과정에서 초임교사들은 참 교사상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알아가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전문성을 지닌 자격을 갖춘 교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교사발굴과 양성과정의 한계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하며 교사의 영성, 섬김의 자세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양성 제도운영의 당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임교사는 자신이 기대한 바와 실제 사이의 괴리감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경우 쉽게 교사직을 포기하거나 억지로 교사직을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열의를 가지고 시작한 경우라도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쉽게 교사직을 포기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박은혜(2013)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더 나아가 교수현장에서의 실제적 괴리감을 느낄 때 교사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의 상황은 곧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떨어지도록 작용하여 이로 인해 교사직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박범철(2008), Biber(1988) Guskey(198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사에게 단순히 사명감에 충실한 헌신과 순종만을 요구하기보다 교사 스스로 교회학교 교사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귀한 직무를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방은영, 2017).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교사 스스로 교사자격과 의무에 대한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계기로 교회는 엄격한 교사자격의 부여와 검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교사교육 직전에 이루어진 심층면담에서 영아부 초임교사들 대부분 교회나 사회에서 영아발달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었다. 그렇기때문에 영아의 인지, 언어, 신체, 사회정서발달 특성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유아교육 전문가의 강의에 대한 기대 또한 컸음을 말해주었다.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발달 관련 교육을 통해 영아야말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소통이 가

능한 존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아가면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고 말해주었다. 이는 초임교사들 대부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영아부 예배와 영아들과의 직접적인 교수 실제 상황에 대한 염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아발달 관련 교육이 매우 의미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교사들이 영아관련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사들의 대처와 교수실제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 이혜원, 임수진(2007)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초임교사들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영아발달 관련 교육이 영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고 담당할 영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주어 영아부 교사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회학교 교사라도 해당 연령 발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한 전문성 함양이 중요함을 강조한 강용원, 이현철(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은 결국, 신앙심뿐 아니라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와 가르치는 기술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 박은혜(201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 되기’의 중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있었다. 교사교육 직전에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교사들 대부분은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해주면서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보다 더 큰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점차 교사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자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영아부 초임교사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등, 그동안 교회학교 교사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봉사자’, ‘비전문가’ 그리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감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 초임교사 입문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조인주, 2005; 김정주, 장정애, 2010)에서는 교육기관의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교육이 실시될 때 교사로서의 적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박상진(2007)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회학교 교사양성이라는 점에서 깊은 영성과 봉사와 헌신을 넘어 자신이 감당하는 해당 연령 영아발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해 전문성을 지닌 교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이진원(2015)은 교회학교 교사역할로서 교수-학습자, 반 목회자, 교회교육 활동의 지도자, 교회교육행정가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사역할의 제시는 자칫 교사입문부터 이후의 체계적 관리가 부실한 오늘날 한국 교회학교 운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봉사와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다방면에 유능하고 가르침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만 하는 과중한 교사역할을 요구하여 오히려 교사 이탈과 탈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낳게 한다. 그렇기때문에 교회학교 교사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히 초

임교사의 경우, 철저한 교사교육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넘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계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전문가 협업에 의한 교사교육이 매우 유익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이는 교사교육이 전임교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게 될 해당연령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습득에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사교육에 있어서 관련분야 전문가는 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으로서 관련지식 및 정보제공과 조언 등 일련의 전문적, 기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부 교사교육에서의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은 특히 초임교사가 담당하게 될 영아의 발달을 이해하고 효율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대부분 교육담당 목사나 파트타임 교육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정이 결국 교회학교 운영의 부실과 특히 교사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김만형(200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에서 지금까지 관습처럼 이루어져 온 사역자 중심의 교사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 교사교육은 비전문성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며 비전문가가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문가 영역까지 개입하는 현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미라(2006)도 전문적인 내용의 계속 교육을 원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교사교육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은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해당연령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아교육 전문가와의 협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을 나타내었다.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대부분 주변의 권유를 통해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이 기대보다 교내용과 방법이 기대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을 지닌 만족할만한 교육이었음을 말해주었다. 더 나아가 교회학교 교사는 일반교사보다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신앙 안에서 점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교육을 받아야 함도 말해주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변화는 무엇보다 기꺼이 섬기는 교사되기의 다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초임교사들은 교사교육이야말로 절대 일회성의 단기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속적이고도 체계성을 지닌 현직교사교육도 필요함을 말해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회학교 교사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강조한 박행님(2014), 박상진(2007)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른 결론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인구감소추세와 맞물려 한국의 교회학교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처참히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교회학교 교사는 참 교사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보다도 철저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의 과정을 거쳐 세워져야 한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로 지원하는 교사 중 해당 연령 지도 경험이 전무하고 생존기를 거쳐야 하는 초임교사의 경우, 막연한 두려움을 벗고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영아부 교사직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의 대상자였던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2021년 영아부의 효과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영아와 부모 관리 등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사역할에 더 많은 무게감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기독교사로서 지녀야 할 기초로서 기독교 세계관,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 교사-영아-부모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에 열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교사직을 수행을 다짐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임교역자와 스텝들은 교사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 지도 경험이 전무한 영아부 초임교사 5명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의 경력과 특성, 요구가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한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다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영아부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는 교사로서의 입문과정에서 자기 반성적 사고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교사직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작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상황을 포함해 영아들과의 실제 만남과 교사직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어떤 양상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는지 살피는 질적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영아부 초임교사 교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영아부 초임교사를 포함해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의 초임교사 입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도 요구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용원, 이현철 (2010).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질적 연구: 전문성 저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93-119.
- [Kang, Y. W., Lee, H. C. (2010). The Qualitative Study to improve Church School Teachers Professionalism: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mpeding Elements in Professionalism. *Bible and Theology*, 54, 93-119.]
- 강은영, 김진욱 (2020). 영아반 초임보육교사의 전문성지원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전문성 및 자아존중감과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1), 51-75.
- [Kang, E. J., Kim, J. W. (2020). The Effects of a Teacher Education Program for Professionalism Support for Beginning Child Care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on Self-respect, Efficacy in Teaching and Professionalism.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6(1), 51-75.]
- 김국환 역 (1990). 기독교 교육과정연구의 이론과 실제. Wyckoff, D. Campbell. (1961).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Curriculum. 서울: 성광문화사.
- 김민정 (2017). 일상물 중심의 수학활동이 유아와 예비교사에게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1(1), 609-631.
- [Kim, M. J. (2017). The Effect of Mathematics Activities Focused on Everyday-life-Materials on Children a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1(1), 609-631.]
- 김선미 (2010). 교회학교 교사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Kim, S. M. (2010). The practicality of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and its improvement plan.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옥주 (2013). 보육전문가가 제안하는 영아반 초임교사의 입문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5), 325-346.
- [Kim, O. J. (2010). Beginning infant teachers' needs for in-service education and ways for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from the aspect of childcare professional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325-346.]
- 김정주, 장정애 (2010). 초임 유치원 교사를 위한 입문교육에 대한 운영실태.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345-359.

[Kim, J. J., Jang, J. A. (2010). A situation about induction education for novice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6), 345-359.]

김지현, 양옥승 (2009). 어린이집에서 영아 보육이 지니는 의미: 보살핌과 가르침. **유아교육연구**, 29(2), 163-190.

[Kim, J. H., Yang, O. S. (2009). The meaning of infant and toddler care at the day care center: caring and teach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2), 163-190.

김향자, 김혜선, 양미현 (2007). 유치원 초임교사 입문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영유아교육연구**, 10, 103-127.

[Kim, H. J., Kim, H. S., Yang, M. H. (2007). A preliminary study of developing an introduction programme for beginning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0, 103-127.

김현주, 조형숙. (2006). 사립유치원 교사문화의 특질: 교사 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6(1), 43-67.

[Kim, H. J., Jo, H. S.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Kindergarten Teachers' Professional Culture to Foster Positive Collabor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1), 43-67.

권현조, 배지희(2018). 만 1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정에 대한 교사의 경험과 의미. **유아교육연구**, 38(2), 61-90.

[Kwon, H. J., Bae, J. H. (2018).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about infants' adjustment in 1-year-old class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_____ 38(2), 61-90.]

권현조, 전홍주 (2020). '되기(becoming)' 관점에서 1세반 초임교사 바라보기. **교육문화연구**. 26(5), 971~999 .

[Kwon, H. J., Jun, H. J. (2020). Looking at novice childcare teachers in one-year-old class from a 'becoming'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6(5), 971-999.]

김만형 (2003). **SS 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 [Kim, M. H. (2003). SS Innovation Report. Seoul: Edunext.]
- 노옥경 (2017). 성서침례친교회 교회학교 교사교육 현황 분석-교사 참여자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성침논단**, 12, 141-185.
- [No, O. K. (2017). Korea Baptist Bible Fellowship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Analysis-Focusing on Responses from Teacher Participants. *Bible Baptist Journal of Theology*, 12, 141-185.]
- 문은영, 신혜원 (2012). 보육시설 초임교사 입문교육의 운영형태에 따른 초임교사 교직적응. **열린부모교육연구**, 4(2), 67-91.
- [Moon, E. Y., Shin, H. W. (2012). New Teachers' Level of Adaptation to the Teaching Profession Programs for the New Teachers at a Child Care Center. *Journal of Parent Education*. 4(2), 67-91.]
- 박미라 (2006). 한국 교회학교 교사의 요구분석: 세 개의 포커스 그룹 연구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2, 481-515.
- [Park, M. R. (2006). A Need Assessment of Korean Sunday School Teachers in Three Focused Group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2, 481-515.
- 박미화, 하연희, 권미량 (2019).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예정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1). 59-93.
- [Park. M. H., Ha. Y. H., Kweon. M. R.(2019). A Survey Study on the Sunday School for Infants: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Faith & Scholarship*, 24(1), 59-93.]
- 박상진 (2007).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Park, S. J. (2007). A New Paradigm of Teacher Education for The Revival of Church Schools.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박은혜 (2008). 교회학교 교사의 정체성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기독교교육논총**, 18, 131-152.
- [Park, E. H. (2010). Suggestion to Church School Teachers'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Ident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8, 131-152.]
- 박은혜 (2013). 교회학교 교사의 헌신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4, 317-348.
- [Park, E. H. (2013). A Study on Commitment of Church School Teache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317-348.

박은혜 (2020). 예수님의 임파워먼트의 교사교육 및 양육에의 적용방안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5, 205-234.

[Park, E. H. (2010).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Nurture of Jesus' Empower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5, 205-234.]

박은화 (2009). 부모와 분리된 영아부서 교사들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Park, E. W. (2009). Developing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parent-segregated infant teachers.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박행님(2014). 모바일 러닝을 활용한 교회학교 교사교육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 53(1), 327-360.

[Park, H. N. (2014). Studying how to use mobile learning on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The Gospel and Practice*, 53(1), 327-360.]

박현웅 (2005). 교회학교 교사들의 조직헌신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Park, H. W. (2005). *Influential factor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church school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Korea.]

박혜영 (2003). 부모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영아부 교육에 관한 연구;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Park H. Y. (2003). A study on the education of infant education separated from parents; Focused on the case of central church in Bundang.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방은영 (2017). 교회학교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유치부 교사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03-140.

[Bang, E. Y. (2017). Influence of Teaching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in Church School Teachers-with priority given to teachers in nursery, preschool and kindergarten departments-. *Fath & Scholarship*, 22(3), 103-140.

성은영, 최승연 (2015). 만 1세 신입 영아교사의 어려움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3), 385-403.

[Exploration into the Difficulties of Beginning Infant Teachers who Teach 1 Year Old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6(3), 385-403.]

송문규 (2013). 교회학교 교사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Song, M. K. (2013). A Study on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Church School Teacher - With a focus on Kwang Lim Methodist Church Curriculu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Seoul, Korea.]

신언혁 (2004).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9, 425-452.

[Shin U. H. (2004). Development of Vocational Role Training Program for Church School Teach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9, 425-452.]

오영범, 이창두 (2012).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수업이 수업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8), 317-326.

[Oh, Y. B., Lee, C. D. (2012).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English Class Using Videoconferenc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8), 317-326.]

유재덕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회교육. **기독교교육논총**, 63, 13-37.

[Yu, J. D. (2020). Church Education in the COVID-19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13-37.]

은준관 (2007). 기독교교육 현장론. 서울:한들출판사.

[Eun, J. K. (2007). Christian education. Seoul, Handle Press.]

이기룡 (2014). 교회학교 교사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예장 고신 총회교사대학을 중심으로. **복음과 교육**, 16, 75-112.

[Lee, K. R. (2014). Study on Improving Education programs for Sunday School Teachers curriculum. *Gospel And Education*, 16, 75-112.]

이수인 (2014).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문제중심 학습법의 사용 -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문제중심 학습법의 효과에 대한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 **기독교교육논총**, 37, 233-259.

[Lee, S. I. (2014). Problem-based Learning in a Local Church - A Grounded Theory Study of the Korean Church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233-259.]
- 이영은 (2002). 웹기반 교회학교 교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 [Lee, Y. E. (2003). A Study of Church Teacher's the Needs and Awareness on the Web Based Church Teacher Trainin.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이완희, 박찬옥 (2005). 2세 영아반 초임교사의 정체성 형성 과정. **유아교육학논집**, 9(3), 5-30.
- [Lee, W. H., Park, C. O. (2005). The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9(3), 5-30.]
- 이요섭 (2002). 교회학교 교사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Y. S. (2002).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sunday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이진원 (2015).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교육 시스템”. **교육목회**, 48, 68-75.
- [Lee, J. W. (2015). The “Church School Teacher Education System” that will set the next generation right. *Educational Ministry*, 48, 68-75.]
- 이혜원, 임수진 (2007). 유아교사의 교수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반성적 사고, 정서적 적응성,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7(4), 401-418.
- [Lee, H. W., Lim, S. J. (2007). The Correl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ispositions toward Reflective Thinking, Emotional Adaptability and Motivation Orientation with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4), 401-418.]
- 임용수 (2001). 교회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 [Lim, Y. S. (2001). Study of programs for teacher education in Church schools. Master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 정대현, 곽연미 (2014). 교회학교 영유아부 교사의 갈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9(2), 213-235.
- [Jung, D. H., Kwak, Y. M. (2014). A Study on Conflicts and Stresses Experienced by Teacher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Church Schools. *Fath & Scholarship*, 19(2), 213-235.]
- 정영선 (2008). 교회학교 교사교육 이러닝(e-learning) 도입에 관한 교사의 요구조사. 석사학 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Jung Y. S. (2008). Analysis on Teachers' Demand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e-Learning for Sunday School Teacher Education at Church.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정해숙 (2007).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Jung. H. S. (2007). Survey of Actual Conditions for Activating Church School Infant.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정희영. (2004). 기독교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Jung, H. Y. (2004). Christian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Kyoyookbook.]

정희영 (2011). 교회학교 유아기 교육과정 기획과 교사교육의 방향: 코메니우스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31, 5-45.

[Jeong, H. Y. (2011). The Curriculum Planning for Young Children of School and Direction of Teacher's Training Program: Based on Comenius' Educational Thought. *The Journal of Chongshin University*, 31, 5-45.]

조기숙 (2020).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Jo, K. S. (2020). A Study on Development of Curriculum for Sunday School Teacher Training.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Seoul, Korea.]

조인주 (2005). 초등학교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Jo, I. J. (2005). A Study on the Induction Program Development for Beginning Teachers of Elementary School. Master Thesis.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조철현 (2017).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 헌신도, 만족도, 그리고 교사사역 인식에 대한 양적연구: 장로교 K 교단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3, 157-181.

[Cho, C. H. (2017). A Quantitative Study of Church School Teachers' Competence, Devotion,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Teaching Ministry: Focusing on K Presbyterian Denominatio. *Korea Reformed Journal*, 43, 157-181.]

조한나 (2019).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 자기 평가 도구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Jo. H. N. (2019). Developing a Self-assessment of Developmental Levels for Church School

- Kindergarten Teachers. Master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조혜진 (2007). 영아반 초임교사들의 어려움과 적응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학논집**, 11(2), 237-262.
- [Jo, H. J. (2007). Understanding the Difficulties and Adjustment of Beginning Teachers in Charge of Toddler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1(2), 237-262.]
- 최성진 (2018). 기독교 유아교사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Choi, S. J. (2018).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최지현, 권경숙 (2012). 미혼 초임교사의 영아반 적응과정 탐색. **육아지원구**, 7(2), 75-101.
- [Choi, J. H., Kwon, K. S. (2012). A Study o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Unmarried Beginning Teachers to Infant Clas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7(2), 75-101.
- 한미라 (2008). 교회의 교사교육 실태와 성서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21, 275-314.
- [Han, M. R. (2008). Some Biblical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Issues of Teacher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1, 275-314.]
- 함영주, 전병철, 신승범, 이현철, 조절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 [Ham, Y. J., Jun, B. C., Shin, S. B., Lee, H. C., Cho, C. H. (2015). *A Study of Church Ministers Recognition on Churc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1-33.
- 홍정근 (2002). 교육교회 300호 축하맺세지: 교육교회를 손에 들 때마다 거는 기대감. **교육 교회**, 300, 7.
- [Hong, J. K. (2002). Education Church No. 300 Congratulations: The every time Expectations toward an Educational Church. *Education Church*, 300, 7.]
- Biber, B. (1988). The Challenge of professionalism: Intergrating theory and practice. In B. Spodek, O. N. Saracho, & D. I., Preters (Eds.), *How students learn: Reforming school through learner-centered education* (pp, 409-448).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ross, R. (1995). The role of mentor in utilising the support system for the newly qualified

- teacher. *School Organization*. 15(1), 35-42.
- Guskey, T. R. (1988). Teacher efficacy, self-concept, and attitudes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instructional innovation. *Teaching Teacher Education*, 4, 63-69.
- Halford, J. M. (1998). Easing the way for new teachers. *Educational Leadership*, 55(5), 33-36.
- Kathleen, F. K. (2008). *Being an Effective Mentor*. CA : Corwin Press.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Teacher Education*. 36(1), 37-41.
- Schmid, M., & Knowles, J. G. (1995). Four woman's stories of 'Failue' as beginning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1, 429-444.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 탐색

Exploration of Changes in the Process of Beginning Teacher Education in the Nursery Department of a Church School

방은영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 교사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K구에 위치한 J교회의 2021년도 영아부 교사로 지원한 5명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원격화상회의시스템(Zoom)을 활용한 각 40분씩 총 2회의 개별 심층면담과 각 1시간 30분씩 총 6회차의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기독교 세계관', '교사의 영성훈련', '기독교 교사론', '영아발달의 이해(I II)', '교사-영아-학부모 관계와 소통법'이다. 심층면담과 반성적 저널쓰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영아부 초임교사들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영아부 초임교사들은 '영아부 교사자격에 대한 반성적 사고', '처음 접해보는 영아발달에 대한 이해와 놀라움', '봉사와 헌신을 넘는 전문가로서의 교사되기', '전문가 협업의 실제적 도움에 대한 필요', '항상 배우고 기꺼이 섬기는 교사 되기의 다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교회학교 교사선발과 양성,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 지원을 위한 전문가 협업과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교회학교, 영아부, 초임교사, 교사교육 과정